

# 주가는 급락, 목표가는 상향... 반도체주 향한 잇달린 전망

‘베라 루빈 쇼크’, 하락 원인 꼽혀  
외국인 매도세 등 추가 하락 우려  
증권업계 “AI 메모리 수요 지속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 자체가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노무라증권)

“스페이스X의 AI 패권 경쟁 참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발행할 거대한 ‘메모리 빌지’ (Bill·청구서)의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다.”(삼성증권)

미국발 ‘반도체 쇼크’에도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을 한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온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10.18% 급락한 29만 5500원에 마감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추락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7.68% 내린 191만 1000원까지 하락했다. ‘30만전자’, ‘200만닉스’의 벽이 깨진 것이다.

최근 반도체 급락세는 ‘베라 루빈 쇼크’ 탓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라 루빈 쇼크’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서버 1대당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이란 우려에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한 현상이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불안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데 개인만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 “대폭락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등 우려 섞인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내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420만명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단기 변동성은 커졌지만, 실적 기반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9만원에서 53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31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렸다. 에이전트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장기 공급계약 확대를 반영한 결과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조정을 단기 조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AI 투자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투자를 줄이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황 강세가 지속되는 한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BNP파리바 등이 제기한 메모리 고점론에 대해서도 “AI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데이터센터 내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점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SOCAMM

2채용량 감소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사양 재분배와 출하 구성 조정의 의미”라며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고 공급 부족 상황도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61만원, 400만원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조정은 과열됐던 주가와 수급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과정”이라며 “향후 주요 경제지표와 실적, 수급 흐름이 투자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AI 기대 약화와 금리 환율 변수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10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12일 스페이스X 상장,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스페이스X, IPO 목표액 2배 자금 몰렸다

1500억달러 투자 수요 확보

미래에셋 청약 5억달러 조기 마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공모 목표액의 두 배에 달하는 1500억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몰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약 물량이 수분 만에 소진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회사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려는 75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의 주문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책정됐으며 기업가치는 약 1조 7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장 직후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 있는 한 건물에 스페이스X의 로고가 붙어 있다. /AP뉴시스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단순한 우주 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 운송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아우르는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 측도 투자설명회에서 우주 발사와 인터넷 연결, AI 사업을 통해 수조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투자 열기가 뜨

겁다. 미래에셋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은 이를 연속 조기 마감했다.

지난 5일 진행된 1차 청약에서는 3억달러 규모 물량이 접수 개시 1분 만에 소진됐고, 8일 진행된 2차 청약 역시 2억달러 규모 물량이 2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계획했던 총 5억달러 규모 모집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청약은 최소 투자금액이 10만달러에 달하는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단기간에 물량이 소진됐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스페이스X의 성장성과 상장 이후 주가 상승 기대감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PO 시장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거래인 데다 스타링크와 AI 사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관과 고액자산가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우주산업 관련 투자 관심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신한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 신설

업계 최초 사외이사 위원장

신한자산운용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회를 마련했다. 투자·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업계 최초로 사외이사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 투자자와 수익자의 장기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탁자 책임활동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존 ESG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던 관련 안건을 별도 위원회로 분리해, 투자·영업 부문과 일정 부분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내의 스튜어드십코드 기준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이해상충 관리, 의사결정의 독립성, 투명한 기록 및 공시 체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신한자산운용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탁자 책임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은 신선휘 사외이사가 맡는다. 신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로, 금융·자본 시장 분야에서 오랜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다.

신한자산운용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과 함께 기존 ESG위원회도 전사적 ESG 투자전략 회의체로 재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외국인통합계좌, 증권업계 새 먹거리 부상

미래에셋, 싱가포르 증권사와 계약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국내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던 진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외국인통합계좌(Omnibus Accoun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증권업계의 해외 개인투자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싱가포르 대형 증권사 UOB Kay Hian과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UOB Kay Hian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중화권과 동남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

지 대표 증권사다.

외국인통합계좌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절차가 단순해지고,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계좌 개설 주체 제한과 보고 의무 등 규제로 실제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하나증권이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홍콩 오픈퍼드증권과 손잡고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어 삼성증권은 지난달 미국 대형 온라인 브로커 인터랙티브브로커스(IBKR)와 협업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외국인 거래는 기관 중심이었지만,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미국·동남아시아·중화권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직접 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정윤 기자

## 밸류업 공시 731곳 돌파... 시총 비중 83%

밸류업지수 3977선 최고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가 누적 730곳을 넘어섰다. 밸류업 지수도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총 731개사(코스피 343개사·코스닥 388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5월 한 달간 신규 공시에 나선 기업은 17개사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6260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83.1%를 차지했다. 특히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87.8%에 달했다.

주기적 공시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주기적 공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13개사로, 5월에는 티씨케이, 현대퓨처

넷, 한섬, 메리츠금융지주 등 10개사가 관련 공시에 참여했다.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5월 32개 상장사(코스피 22개사·코스닥 10개사)가 총 8172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LG는 약 2500억 원, 영원무역홀딩스는 111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으며, 셀트리온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의 성과도 가시적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29일 3977.00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산출 개시일(2024년 9월 30일·992.13포인트) 이후 누적 수익률은 300.9%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226.9%)을 74.0%포인트 웃돌았다.

밸류업 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 4조 3000억 원으로 늘어 최초 설정 시 대비 787.8%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